특집

덴마크의 돼지고기 소비와 유통

-홍 보 부-

1. 돼지고기의 소비

덴마크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1977년 41.7kg에서 1994년 66.8kg으로 1977년보다 25.1kg 증가하였는데, 육류 총 소비중에서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7년 66%, 1994년 66.3% 정도 차지해 육류소비 중에서 돼지고기의 소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표 1 참조).

〈표 1〉 1인당 육류소비량

(단위 : kg)

구 분	1977	1985	1992	1994
돼지고기	41.7	56.7	64.6	66.8
쇠 고 기	13.7	13.7	20.7	22.0
가 금 류	8.3	11.0	13.5	12.0

주 : 1994년은 예측치임.

자료 : EUROSTAT, 1994.

2. 돼지고기의 유통

덴마크의 돼지고기 유통은 돼지고기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관계로 인하여 수출 위주의 유통 구조로 되어 있다.

먼저 생산단계에서는 덴마크 농업이사회(또는 농업위원회)가 국내 정책적인 활동과 EU정책에의 대응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덴마크 농업의 교섭단체 기능을 하고 있다.

양돈조직에 대해 살펴보면, 그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덴마크 돈육수출기구연합(이하 DS)이다. 덴마크에서는 연간 약 1천8백만두의 돈육이 생산되고 있지만, 슬로터 하우스(도축장과 식육가공장이 병설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는 1993년까지 5개 회사 24개소 밖에 없었다.

이들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1986년 시간당 100.41DKr (14,072원)을 받던 것이 1993년

3/4분기에는 시간당 146.59DKr (20,545원) 정도를 받고 있다 (표 2 참조).

〈표 2〉 도축장 근로자의 임금수준

(단위 : DKr/h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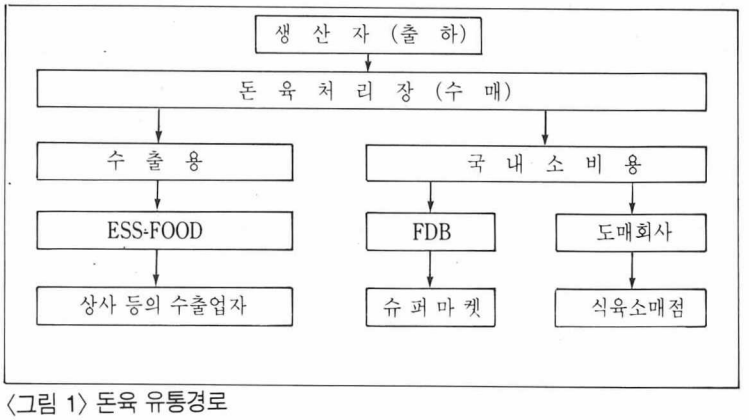
구 분	임 금[1]	지 수 (1980=100)
1986	100.41	149
1987	111.92	166
1988	120.77	179
1989	125.14	185
1990	131.52	194
1991	136.18	202
1992	141.92	211
1993	146.59[2]	218

주 : 1) 휴일급여와 병가급여를 포함.
2) 3/4분기 까지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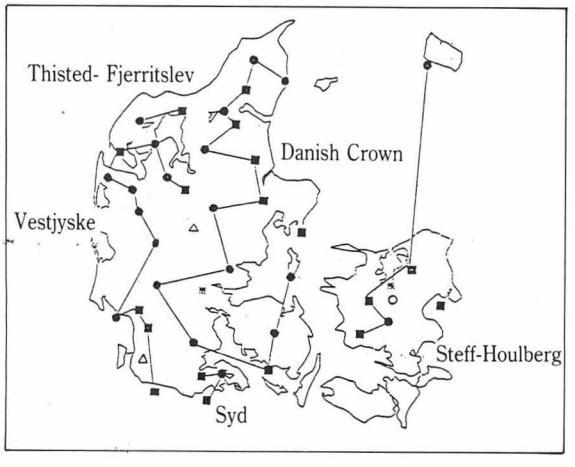
자료 : The Employer's Association.

최근 덴마크의 돈육 도축회사는 통합화가 진행되었는데 1994년 10월 도축두수 규모에서 제1위와 3위의 기업이 합병을 단행하여 5개사에서 4개사로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4개의 도축회사를 통합하여 단일화하려는 구상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을 총괄하는 조직이 DS이며 그 업무는 마케팅, 돼지의 품종개량과 생산지원, 가축질병대책, 교육, 홍보활동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이들 조직의 운영에는 생산자로부터의 돼지출하 부과금 및 출하돼지에 대한 회원료 (Member Fee)에 의한 수입으로 운영되는데 1993년 현재의 부과금은 출하돈이 100kg 이하일 경우는 1두당 7DKr이며, 100kg 이상일 때는 17.50DKr로 DS가 일괄 징수하여 하부조직에 배분하고 있다.



〈그림 1〉 돈육 유통경로



〈그림 2〉 도축장의 분포와 결합관계

덴마크의 돈육유통경로를 표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생산자는 돈육처리장(도축장)에 일괄 출하하게 되고 돈육처리장에서는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하여 수출용은 ESS-FOOD를 통하여 수출업자에게 넘겨지게 되며 내수용은 FDB나 도매회사를 통하여 소매점에 판매하게 된다.

ESS-FOOD는 공동수출기구로 4개의 협동조합중 데니쉬크라운(Danish Crown), Steff-Houlberg, Thisted의 3개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있어 생산자 소유의 협동조합이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FDB는 생협연맹으로 덴마크 전체 세대의 약 절반이 가입되어 있는 방대한 조직이다.

참고로 도축장의 분포와 결합관계를 보면 〈그림 2〉와 같다.